

GILLETTE ORDERS

Ferdinando Frega — Nando the Scribe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의 주문

THE COMPANY · 02

"최초의 Gillette 카피 의뢰. 종이보다 훨씬 전, 잉크보다 훨씬 전."

그 빌어먹을 이웃은 매일 아침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. 먹다가 가죽에 기름이 묻었는데 그것을 씻어 낼 방법이 없었다 —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고, 수상 가옥은 가진 것으로 버티며 살았다.

그에게는 구애하러 가는 약속이 있었다. 두 번째 땅의 원시 소녀가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, 그는 흠 하나 없이 나타나야 했다.

문제는 그대로였다.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캐나다에서 온 원주민 상인이 나타났다. 그는 크리어로 쓴 자신의 첫 카피 의뢰를 지니고 있었고, 가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 일을 아무도 해결한 적이 없다는 것을 — 그리고 그 빈틈에서 시장 하나가 태어났다는 것을 — 단번에 알아보았다.

바로 그때 생각이 떠올랐다.

씻어 낼 수 없다면, 상한 부분을 잘라 내라. 면도날을 써라.

그것이 Gillette 카피 의뢰가 태어난 순간이다 — 아주 여러 해가 지나 1800년대 중반 미국 시장에서 쓰이게 될 바로 그것이.

그러나 체계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: 씻어 낼 수 없다면, 잘라 내는 편이 낫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,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.

Ferdinando